

영농승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영농실습 요구도 분석

엄지범*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강의초빙교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Needs Analysis of Farming Practice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Farm Successors

Ji-Bum Um

Lecture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eds analysis for agricultur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farming practices that were emphasized by focusing to the inflow of farmers and the importance of the smooth succ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34 farm successors. The Borich demand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were hired for the study. Result were as follows. The competency group that the farm successors showed a high educational needs for was financial management. As for the detailed competencies that farm successors showed high educational needs for, based on Borich demand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six detailed competencies of financial measures,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management, sales planning, machine operation, and pest management were common and were derived as priorities. As for the direction of farming practice education for farm successor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education on machinery operation in the production sector should be expanded, and the management sector, more systematic and diverse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to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Key words: farm successor, educational needs, farm succession. farming practice, agricultural education

1. 서론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1970년 1,442 만명에서 2015년 257 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50세 미만의 젊은층은 1970년 84.4%를 차지하던 것이 현재(2015년 기준) 29.6%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은 1970년 7.9%에서 현재 50.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경영주 비중 역시 7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급격히 전개되어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경영의 구조적 악화에 따라 농업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시작은 1989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으로 1991년에 농업구조대책이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영세농가의 은퇴에 의한 농지유통화,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의 확대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상정되어 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석두, 김정호, & 김창호, 2011).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신규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1990년대 이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뿐이었다. 이후 법인경영체 육성사업, 전업농 육성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농업인의 영농성장단계에 맞는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마상진, 박성재, & 감강호, 2011).

그러면서 농업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귀농정책이 그 중심

주요어: 영농승계자, 교육 요구도, 영농승계, 영농실습, 농업교육

* 주저자(엄지범) 전화: 063-270-2532, e-mail: umjibum@jbnu.ac.kr

이 되어왔다. 그러나 귀농가구(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0세로 나타났으며, 50-60대 연령층이 67.5%를 차지하고 있어 은퇴세대대를 중심으로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귀농어·귀촌인통계, 2019). 이는 국내 농업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서 자원을 획득하여 집적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은퇴세대의 귀농자가 중핵적 농업인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귀농자가 농지 획득, 기술습득, 소득 확보 등의 문제로 농업을 그만두는 역귀농 사례도 나타나는 등 귀농정책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가능성 위기를 탈각하기 위해서는 30대 및 40대 연령층의 농업 유입이 한국 농업의 인적 자원 재생산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정섭, & 이정해, 2017). 다만 이들은 현재로서는 농촌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젊은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농업 부문 인적 자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규귀농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농 경험 및 기술의 부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생계비 문제, 토지 등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본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 수 있다(한국농수산대학, 2019).

한편 농업인력 부족 등 후계인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한세대에 끝나버리는 1세대 완결형 농업구조의 고착화 속에서 특히 후대의 농업경영을 짊어질 '사람'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은퇴 또는 경영을 종료하고자 하는 농가에 후계자가 없어 경영자원이 승계되지 못하면 결국 요소시장을 통해 분할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재생산되는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엄지범, & 박명은,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영농승계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영농승계자는 부모세대가 집적한 농지 및 경영자산의 이전이 승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유형적 자산의 획득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경영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등 무형적 자산 습득에 있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의 유리한 획득을 기반을 조기에 정착한다면 장기적 영농기간이 확보되어 중핵적 농업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농업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농산물의 과잉생산 기조, 농산물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위기상황 가운데 소비자의 요구는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어 전통적인 농업구조는 붕괴되고 있고 농업관도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농업경영 환경하에서 농업인은 단순한 부조전래로 이루어지는 '단

순한 업주'로써는 경영의 유지존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가 된다(淡路和則, 1996).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농승계자의 확보와 이들의 초기 정착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에 영농승계자들에 있어 농업경영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요구분석은 휴먼서비스와 교육 분야에 있어 의사결정을 위한 일종의 도구이며 프로그램과 조직의 개선, 자원배분에 대한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을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이다(Mckillip, 1987; Witkin, & Altshuld, 1995).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 수요자의 의사를 측정하는 요구분석은, 농업인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마상진, & 김영생, 2006), 농촌지도기관이 제공하는 농업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분석(김대희, & 신윤호, 2012), 치유농업운영자의 교육 요구 분석(강대규, 이효진, & 김경미, 2018), 농촌리더의 교육요구분석(김진모, 손규태, 유영주, & 정지용, 2019)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주로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진입단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같은 진입단계라도 영농승계자는 신규귀농자와 차이가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영농승계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정리하고 영농승계와 농업경영역량의 의의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영농실습에 참여한 영농승계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농승계자에 대한 영농실습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농승계와 영농실습

2.1.1. 영농승계

국내에 있어 영농승계에 대한 논의는 농지상속 등 경영이양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영호(1982)의 연구에서 농지의 임대차관계, 위탁경영 농지상속제도 등 소유권과 경영권 관계를 재정립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농지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농지상속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농업총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농승계자 확보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속문화의 정착, 승계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육성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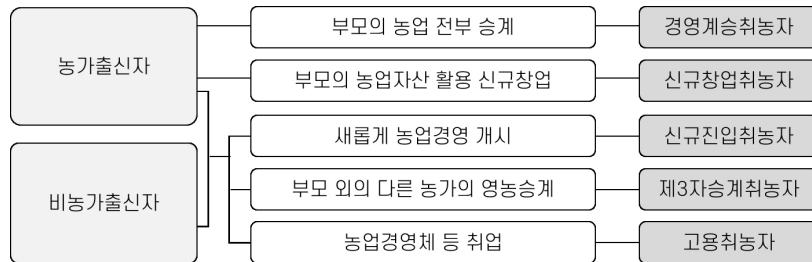
영농승계는 농업인의 유입형태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2017)의 연구에서 농가출신 여부에 따라 그 경로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그림 1) 취농의 유형을 경영계승 취농자, 신규창업 취농자, 신규진입 취농자, 제3자 승계 취농자, 고용취농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영농승계자는 농가출신자로 부모의 농업 전부 승계하는 경영계승 취농자, 그리고 비농가출신자 중 부모 외의 다른 농가의 영농을 승계하는 제3자 승계취농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어 영농승계는 부모세대의 경영자산을 이양이나 상속의 형태로 물려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 영농승계는 제3자 승계를 제외하고, 농가출신자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농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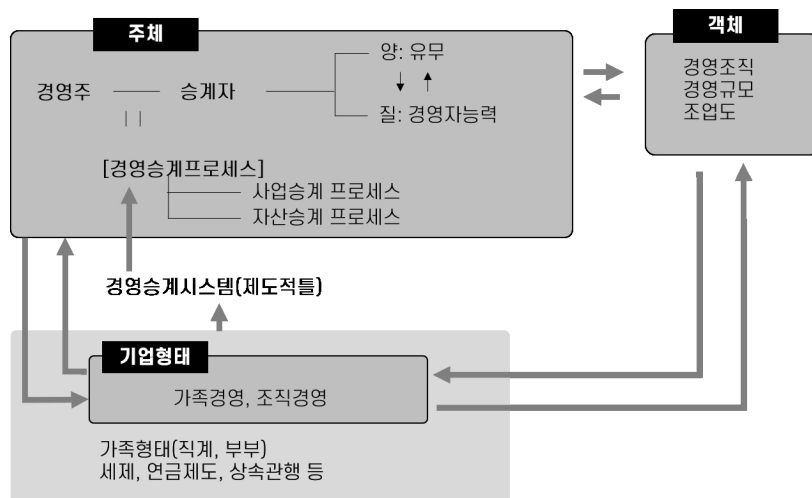
2.1.2. 영농승계 프로세스와 영농실습

영농승계에 대한 연구가 선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연구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 기간적인 농업노동력이었던 전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기를 앞두고 농업경영의 승계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柳村俊介(2003)는 경영승계의 패턴을 ①농가형승계시스템(직계가족에 의한 승계), ②준농가형 승계 시스템(구성원세대의 후계 확보, 출자지분·농지의 혈연양도), ③비농가형 승계 시스템(가족에 구애받지 않는 승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농가형승계에 있어서의 연구에는 경영자의 경영관리 문제로써 후계자의 역량 육성 및 현 경영자에서 후계자로의 권한 이양 프로세스 등의 해명이 이루어졌다.

농업경영의 승계와 경영의 권한 이양을 축으로 하는 경영주와 후계자의 관계 변화의 과정을 <그림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림 1> 신규 취농 유형
 자료: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2017)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2> 영농승계 문제의 프레임
 자료: 柳村俊介(2003)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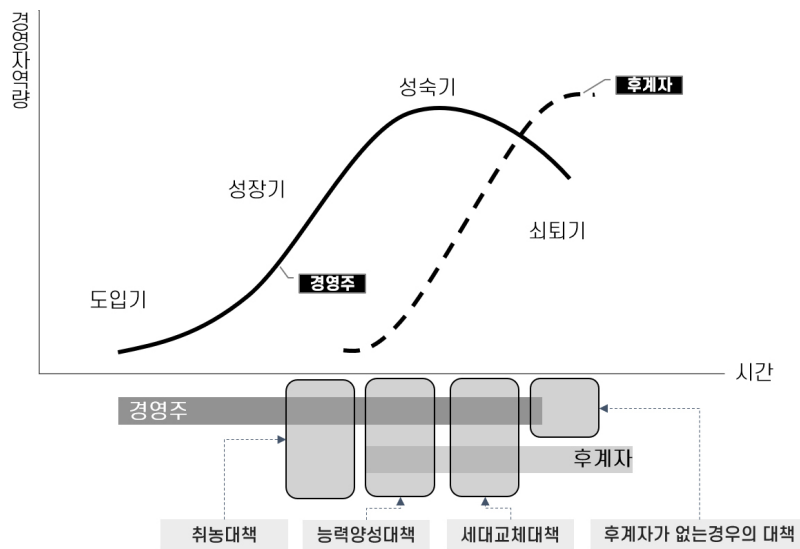
경영승계 문제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 즉 과정의 부진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梅本雅, & 山本淳子(2005)는 농업경영승계의 프로세스를 라이프사이클로 도식화하여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경영자가 성장하는 시기에 취농대책이, 후계자의 도입기에 역량 양성 대책이, 경영자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세대교체 대책이 필요하여, 쇠퇴기에 후계자가 없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고 프로세스별 대책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교체 대책에 있어서 柳村俊介(2018)는, 농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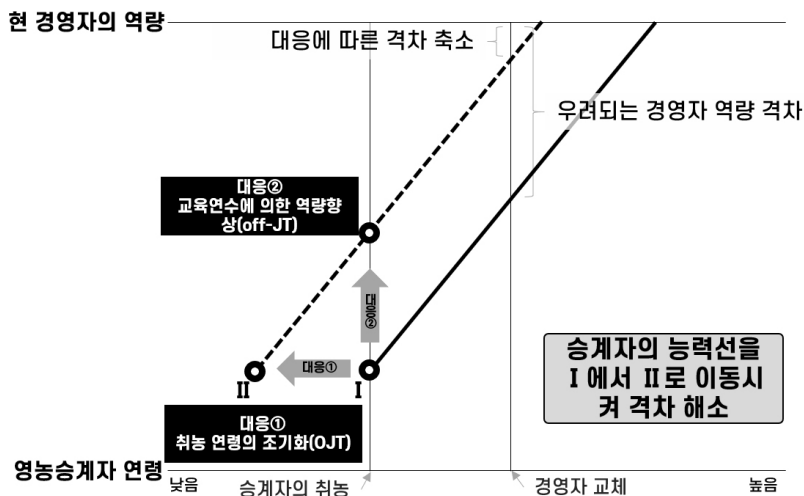
승계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간의 나이 차는 숙련 경영자에서 미숙한 후계자로 경영 권한이 이양된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① ‘취농 전에 교육·연수 기회 제공’ ② ‘취농시기의 조기화’ ③ ‘2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기간 확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림 4). 즉, 경영 승계 과정을 장기화하거나 진행을 촉진함으로써 승계자의 역량 부족을 채우는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자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승계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승계에 있어 인재육성의 기본은 실천에 의한 학습,



<그림 3>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영농승계의 프로세스

자료: 梅本雅·山本淳子(2005)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4> 세대교체시의 경영자 역량 차이와 그 대응책

자료: 柳村俊介(2018)를 참고하여 작성

즉 영농실습이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역량의 차이를 축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농업실천은 인재육성의 기축이 되는 것이며 실습경험이 교육상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일반기업에 있어서도 현장훈련은 지식의 전수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방법이다. 따라서 영농승계자에 있어서 경영자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영농실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정지인, & 김성훈, 2017; 淡路和則, 1996).

2.2. 영농승계자와 경영자 역량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후계자의 도입기에 경영자 역량을 양성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柳村俊介(2018)의 논의와 같이 조기에 취농하거나 세대간 공통하는 영농기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승계자의 경영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농가형 승계시스템의 약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권한 이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계자 및 신규취농자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영관리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淡路和則(1996)는 경영관리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Fayol(1949)의 모든 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6가지 직능)을 참고하여 농업에 적용하였는데, 농작업, 영업, 재무, 보전으로 승계농업인의 역량을 구분하고 있다. 경영관리라고 하는 기능의 발휘, 즉 관리적인 작업의 수행이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경영관리의 내용에 주목하여 농가의 후계자 성장 프로세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土田志郎(1996)은 경영관리에 대하여 ‘경영목표의 설정이나 부문 간의 조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적 관리와 업무적 관리에 해당하는 전술적 관리로 대별’하고 후자를 농지관리나 기계시설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島義史(2009)는 土田志郎(1996)의 논의를 발전시켜 ‘전술적 관리’에 있어 취농의 결정, 작물이나 재배면적의 확정 등 취농시에 있어 ‘전략적 관리’의 실시 이후 ‘전술적 관리’의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고 ‘생산관리’를 ‘재배관리’와 ‘작업관리’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인건비나 자재비 등의 관리를 ‘비용관리’로 확립하였는데, 재배관리(육묘관리, 비배관리, 모포관리, 병충해대책), 판매관리(출하조제, 판매계획, 판매효율, 판로개척, 정보수집·제공), 작업관리(작업계획, 진보관리, 작업이해, 경로·

표준화), 고용관리(채용, 교육, 능률, 지시·분담, 처우, 인간관계), 비용관리(예산, 자재비관리, 인건비관리, 피해대응), 재무관리(상황관리, 재무분석, 재무대책, 투자계획)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딸기작 신규취농자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영자 역량에 대한 연구는 승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으며, 품목이나 농업인 전반에 있어 농업경영자 능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유제창, 1995; 소순열, & 차동욱, 1999; 소순열, 이기웅, & 유찬주, 2005; 유찬주, 2011). 대표적으로 소순열, 이기웅, & 유찬주(2005)의 연구에서 농업경영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진단지표와 진단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정보수집력, 계획력, 실천력, 대응력, 수치감각력, 협조력 등 6가지 진단지표 및 60개의 각 세부 진단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島義史(2009)의 경영관리 역량지표를 기초로, 소순열, 이기웅, & 유찬주(2005)의 국내연구를 참고로 하여 국내사정에 맞게 역량지표를 선정하였다. 재배관리, 작업관리, 판매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의 5가지 영역과 각 세부역량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신규취농자에 있어 경영자 역량지표

영역	세부역량
①재배관리	육묘관리
	비배관리
	병충해관리
②작업관리	작업이해
	인력확보배치
	기계조작
③판매관리	자재조달
	재고관리
	고객관리
④재무관리	판매계획
	재무분석
	재무대책
⑤정보관리	투자계획
	작업기록
	부기회계
	정보수집

2.3. 영농교육 요구도 관련 선행연구

영농승계자나 신규취농자에 대한 교육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

1) Henri Fayol(1949)은 기업에 요구되는 직능에 대하여 ① 기술직능(생산, 제조, 가공), ② 영업직능(구매, 판매), ③ 재무직능(자본의 조달과 운용), ④ 보전직능(재산과 직원의 보전), ⑤ 회계직능(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원가, 통계 등), ⑥ 관리직능(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을 들고 있다.

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Adhikari, & Suvedi(2000)은 미시간주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즈니스 관리, 농장 관리, 농업경영·경제학, 환경 보호 및 농업 마케팅과 같은 역량을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하고있다.

Trede, & Whitaker(2000)의 연구는 아이오와주의 신규취농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필요와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신규취농자들은 경험적 학습,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 그들은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지도기관 및 컨설턴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과 평생 교육이 농업 경력 개발에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iley, Arnold, & Lgo(2014)의 연구는 청년 및 신규취농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몬타나 지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동인, 필요 및 선호도 등 청년 및 신규취농자와 농장주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FGI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연구는 농업 비즈니스 관리 기술, 법률 지식, 의사 소통 기술 및 생산 기술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Benson, Niewolny, & Rudd(2014)의 연구는 버지니아주의 신규취농자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재무 기록 관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계획, 재무관리 및 마케팅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의 연구는 주로 FGI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경영 및 재무 등이 주로 강조되고 있었다. 국내에 있어 영농승계자나 신규취농자에 대한 교육 요구를 측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마상진, & 김영생(2006)은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에서 농업인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농계획, 사업기반조성, 경영관리, 정보획득, 가족지역사회의 관계, 영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생산 관리, 작물재배(기축사육)기술, 마케팅, 사업 검토 및 계획’의 12개 농업인 전문성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요구를 분석하였다. 영농작목별, 경영수준별, 영농경력별, 성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영농일손관리, 정보획득, 농기계 시설관리, 사업기반조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김대희, & 신원호(2012)는 ‘농촌지도기관이 제공하는 농업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분석’에서 전국의 575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요구가 높은 분야는 신기술·신품종에 대한 교육 및 보급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환경 및 유기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 저장·가공·포장 기술에 대한 교육, 정보능력 함양 교육, 영농 및 축산 기술에 대한 교육의 순으로 분석되어 기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준비 및 취농단계의 농업인들에 있어서는 경영컨설팅, 마케팅, 가공 및 유통 등 발전 가능성에 관련된 교육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강대구, 이효진, & 김경미(2018)의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운영자를 대상으로 조대연(2009)이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의해 t-test,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교육요구를 분석하였다. 치유농업 사업 계획서 수립 및 사업비 확보, 치유농업 홍보 및 마케팅, 치유농업 운영상의 수용자 안전과 보호 대비, 치유농업 협력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 치유프로그램 고객 모집 및 관리, 치유농업환경, 경관 및 시설조성이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김진모, 손규태, 유영주, & 정지용(2019)의 연구에서는 농촌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강대구, 이효진, & 김경미(2019)와 같은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구성원 육성, 지역 네트워크, 기획력 상담 등이 우선순위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연구에 있어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주로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준비 및 취농단계에 있어 경영 및 마케팅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영농승계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최근 교육요구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조대연(2009)이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농승계자들에 있어 경영자 역량 요구도를 파악하고 영농승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영농승계를 준비 중인 농업계대학생 중 영농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대면을 통한 설문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9년 6월-9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15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13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설문지의 모든 변인과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대연(2009)이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응표본 t-test,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절충하여 혼합한 우선순위 결정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장면에 있어 요구도를 분석하는데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영농승계자가 영농실습에 있어 바람직한 역량수준과 현재의 역량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바람직한 역량수준은 관련 역량이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을 통해 습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현재 역량수준은 현재 영농승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3.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5가지 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교육을 통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둘째, 영농승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우선순위 결정의 방향성을 알아보기위해 Borich 요구도 공식을 통하여 요구도 값을 산출한다. Borich 요구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Borich 요구도 공식} = \frac{\sum(RL - PL) \times \overline{RL}}{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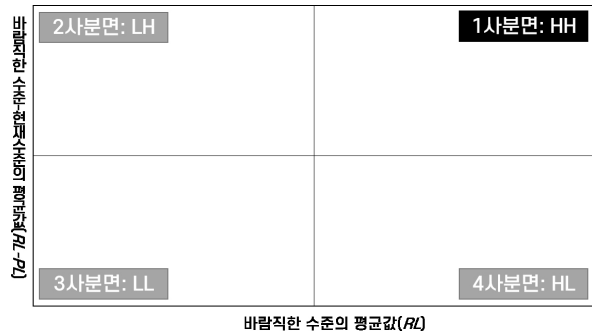
RL : 바람직한 수준

PL : 현재수준

\overline{RL} : 바람직한 수준 평균

N : 전체 사례 수

셋째,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하여 좌표평면(그림 5)에서 16가지 역량항목의 위치를 결정한다. The Locus for



〈그림 5〉 The Locus for Focus 모델

Focus 모델은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 항목들의 점수를 계산하여 시각적으로 도식화함으로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Mink, Shultz, & Mink, 1991).³⁾

넷째, Borich 요구도 값과 The Locus for Focus를 통해 나타난 우선순위를 비교한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HH분면에 포함된 항목과 개수를 파악한 뒤 그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 상위 순위에 포함 항목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The Locus for Focus 모델과 Borich 요구도에서 중복하여 나타난 상위 우선순위를 확인한다(조대연, 2009).

다섯째, 두가지 방법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상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최우선 순위 항목들로 결정하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차순위 항목으로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대응표본 t-test,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영농승계자의 역량확보를 위한 영농실습 교육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지역은 전남이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북이 26.1%, 서울·경기가 1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유형은 경종이 53%, 축산이 47%로 나타났으며, 지향하는 경영형태는 생산중심형이 42.5%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 결정의 해석에 주의할 기울여야한다(조대연, 2009).

3) 가로축은 각 항목의 필요수준이며 세로축은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이 값으로 4분면에 도식화한다. 그림과 같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좌표평면으로 구성된 X축의 평균값이며 Y축의 평균값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1사분면인 HH분면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으로 두 수준의 차이값이 평균보다 높고 필요수준도 평균값보다 높은 영역이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사례수(N)	비율(%)
지역	서울·경기	16	11.9
	강원	5	3.7
	경남	7	5.2
	경북	7	5.2
	전남	42	31.3
	전북	35	26.1
	충남	11	8.2
	충북	6	4.5
	제주/기타	5	3.7
영농유형	경종	71	53.0
	축산	63	47.0
지향 경영형태	생산중심형	57	42.5
	가공중심형	8	6.0
	농업유통서비스형	19	14.2
	생산다각화형	16	11.9
	6차산업화형	33	24.6
	기타	1	0.7
	독립시기 의향	2년이내	18
3-4년		47	35.1
5-6년		45	33.6
7-8년		15	11.2
9-10년		6	4.5
10년이상		3	2.2

취농 후 몇 년 뒤에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이양)하여 독립경영하고 싶은 지를 묻는 질문에 3-4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6년도 3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2.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에 있어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에 있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와 Borich의 요구도 공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농승계자가 높게 인식한 역량군에 관한 필요수준은 작업관리로 평균 4.40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판매관리(4.20)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다. 높게 인식한 현재수준은 작업관리(3.89)로 나타났으며, 재무관리(3.16)에 대한 현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영농승계자가 인식한 역량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에 대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역량 모두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수준보다 필요수준의 평균이 모두 높음을 의미한다. Borich 요구도로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재무관리(5.26), 정보관리(3.86), 작업관리(3.78), 판매관리(3.68)의 순으로 요구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배관리(3.67)는 비교적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농승계자에 있어 부모세대로부터 재배 관리에 대한 습득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재무관리나 정보관리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가 아닌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역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영농승계자가 인식하는 현장실습교육에서 습득하고자 하는 역량 필요수준의 평균은 4.30이며,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차이의 평균은 .90이다. 이들 값을 축으로 하여 항목들을 좌표평면에 구분한 결과 제1사분면인 HH분면에 포함되는 항목은 재무관리 1가지로 나타났다. 재무관리 역량은 필요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니었지만 현재 영농승계자가 습득한 역량의 정도가 매우 낮고,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한 우선순위 영역에 포함된 항목 및 항목수를 고려하여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위와 비교한 결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재무관리’가 모두 높게 나타나 ‘재무관리’ 역량을 확보하고자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실습에 있어 재무관리 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3.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에 있어 교육 요구도(세부역량) 및 우선순위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 교육 요구도 분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표본 t-test,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한 요구도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유형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대응표본 t-test 결과 총 16개 세부항목 모두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필요수준보다 현재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재무대책’ 역량에 대한 요구도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무분석’ 역량이 5.22로

〈표 3〉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에 있어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역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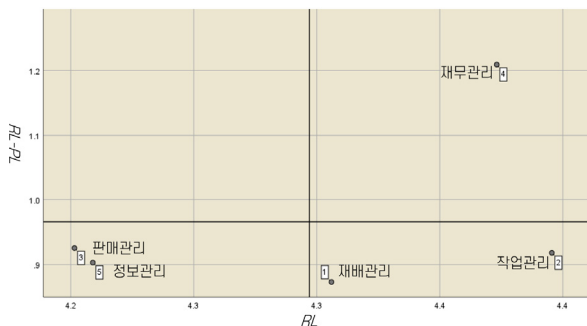
구분	필요수준	현재수준	차이	t-value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LFM
재배관리	4.31	3.43	0.87	9.3074***	3.67	5	LL
작업관리	4.40	3.48	0.92	10.9125***	3.78	3	LL
판매관리	4.20	3.28	0.93	8.6228***	3.68	4	HL
재무관리	4.37	3.16	1.21	10.7323***	5.26	1	HH
정보관리	4.21	3.31	0.90	9.3077***	3.86	2	HL

*** p<.001 LFM=The Locus for Focu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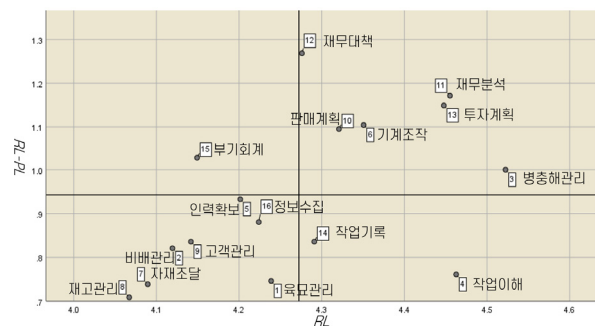
〈표 4〉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에 있어 교육요구도 및 우선순위(세부역량)

역량군	세부역량	필요수준	현재수준	차이	t-value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LFM
재배 관리	1. 육묘관리	4.24	3.49	0.75	7.610305***	3.16	14	LL
	2. 비배관리	4.12	3.30	0.82	8.412465***	3.38	13	LL
	3. 병충해관리	4.52	3.52	1.00	9.634465***	4.52	6	HH
작업 관리	4. 작업이해	4.46	3.70	0.76	8.342915***	3.40	12	HL
	5. 인력확보배치	4.20	3.27	0.93	7.573274***	3.92	8	LL
	6. 기계조작	4.35	3.25	1.10	9.884022***	4.81	5	HH
	7. 자재조달	4.09	3.35	0.74	7.354336***	3.02	15	LL
판매 관리	8. 재고관리	4.07	3.36	0.71	6.415322***	2.88	16	LL
	9. 고객관리	4.14	3.31	0.84	6.736105***	3.46	11	LL
	10. 판매계획	4.32	3.23	1.10	9.108065***	4.84	4	HH
재무 관리	11. 재무분석	4.46	3.28	1.17	10.61673***	5.22	2	HH
	12. 재무대책	4.28	3.01	1.27	11.11146***	5.42	1	HH
	13. 투자계획	4.45	3.30	1.15	9.645418***	5.11	3	HH
정보 관리	14. 작업기록	4.29	3.46	0.84	8.4015***	3.59	10	HL
	15. 부기회계	4.15	3.12	1.03	8.075007***	4.27	7	LH
	16. 정보수집	4.22	3.34	0.88	7.888444***	3.72	9	LL

*** p<.001 LFM=The Locus for Focus Model



〈그림 6〉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교육요구도 결과(역량군)



〈그림 7〉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교육요구도 결과(세부역량)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투자계획’(5.11), ‘판매계획’(4.84), ‘기계조작’(4.81), ‘병충해관리’(4.52) 등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t-value가 높은 것들이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t-value와 Borich 요구도의 순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t-test의 경우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차이만 반영된 반면 Borich 요구도는 필요수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t-test 값만을 활용하여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t-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을 고려대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조대연, 2009)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영농승계자의 역량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표 5) 영농승계자의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우선순위 도출방법	역량군					
	재배관리	작업관리	판매관리	재무관리		
	병충해관리	기계조작	판매계획	재무분석	재무대책	투자계획
Borich 요구도	○	○	○	○	○	○
Locus for Focus	○	○	○	○	○	○

영농승계자의 영농실습에 있어 필요수준의 평균은 4.27이며,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 차이의 평균은 0.94로 나타났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결과 제1사분면에 위치하는 우선순위 역량으로 ‘재무대책’, ‘재무분석’, ‘투자계획’, ‘판매계획’, ‘기계조작’, ‘병충해관리’의 6가지가 포함되었다. 이것들은 주로 ‘재무관리’ 역량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영농승계자들은 경영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영농실습을 통해 습득하고자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HH분면에 포함되는 항목 수 만큼 고려하여 중복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농승계자가 높게 인식하는 세부역량 항목 중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이 공통적으로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총 6가지 요인으로 동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16개의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역량군별로 보면, 재배관리 영역에서는 병충해관리 항목이, 작업관리영역에서는 기계조작 항목이 판매관리 영역에서는 판매계획 항목이 각각 한가지씩 우선순위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재무관리 영역에서는 재무분석, 재무대책, 투자계획의 3가지 모든 항목이 선정되어, 앞서 역량군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세소농구조라고 하는 우리농업의 고착화된 문제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구조로부터 탈각하기 위해서 중핵적 농업인의 육성, 즉 영농승계자의 원활한 유입과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현재 우리농업은 영농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영농승계자들이 인식하는 정착에 필요한 교육, 특히 영농실습교육에 주목하여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농실습을 참여한 영농승계자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134명의 표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대응표본 t-test,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 분석하여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영농승계자들은 역량지표에 포함된 ‘재배관리’ 영역, ‘작업관리’ 영역, ‘판매관리’ 영역, ‘재무관리’ 영역, ‘정보관리’ 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역량 모두 바람직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수준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t-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난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p < .001$).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재무대책’, ‘재무분석’, ‘투자계획’, ‘판매계획’, ‘기계조작’, ‘병충해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가 다른 역량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분석 결과에서는 ‘재무대책’, ‘재무분석’, ‘투자계획’, ‘판매계획’, ‘기계조작’, ‘병충해관리’가 바람직한 수준 및 불일치 정도가 큰 HH분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The Locus for Focus의 HH분면에 속하면서 Borich 요구도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역량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재무대책’, ‘재무분석’, ‘투자계획’, ‘판매계획’, ‘기계조작’, ‘병충해관리’ 역량이 교육요구에서 최우선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가지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차순위 교육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국내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재무관리 영역이 높은 요구를 보이는 것은 마상진 & 김영생 (2006)과 김대희, & 신윤희(2012)의 연구에서 작업관리나 재배관리, 판매관리가 강조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영농승계자를 특정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대희, & 신윤희(2012)의 연구에서 준비 및 취농단계의 농업인들은 경영컨설팅이 높게 나온 점은 유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 농업인과 영농승계자의 교육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Benson, Niewolny, & Rudd (2014)의 연구에서 재무 기록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경영역량이 재무관리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다른연구 결과에서 역시 경영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Adhikari, & Suvedi, 2000; Bailey, Arnold, & Lgo, 2014)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영역은 영농승계자들이 농업경영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사전·사후교육을 통해 반드시 농업경영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할 주제들이라고 판단된다. 확인된 결과를 중심으로 영농승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실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재무대책’ 역량이다. 재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지표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역량인데, 이 역량에 대한 바람직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현재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 그 요구도가 가장 컸다. 이러한 요구는 본론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의 서술식 응답에서도 나타나는데, 영농자금의 확보, 정책자금의 수급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영농승계자들의 취농 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경영 악화에 대한 재무적 대처 등이 포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두 번째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재무분석’ 역량이다. 농업경영에 있어 재무분석은 수익성, 지불능력, 자산의 유동성, 대출상환능력, 재정의 효율성 등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재무를 분석하는 등의 역량이다. 현재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았으나 바람직한 수준은 두 번째로 높아 그 차이가 컸다. ‘재무분석’ 역량은 앞서 1순위로 나타난 ‘재무대책’ 역량과 함께 ‘재무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재무분석을 위한 교육은 경영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정리·분석·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재무분석 교육은 이론 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경영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현장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의 1순위, 2순위와 마찬가지로 ‘재무관리’ 영역에 속하는 ‘투자계획’ 역량이 세 번째로 높은 요구도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은 새로운 투자의 시기나 비용, 회수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역량이다. 경영주로서 투자에 따른 자금 조달과 회수, 타당성 분석 등의 의사결정에 대한 역량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 투자는 종자, 비료 등 투입요소에 대한 것부터 대농기구의 구입, 시설의 설치, 농지의 집적 등 자본자산에 대한 투자

로 그 범위가 넓다.

네 번째로 ‘판매계획’ 역량이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계획은 시황이나 자신의 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한 매출·단가 목표를 정하며, 월·시기별, 출하처별 매출을 정리하여 매출 동향을 체크하는 역량이다. 특히 소비자 중심형 시장으로 농산물 시장이 변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역량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거래처의 다변화 및 다양한 유통 루트의 확보방안, 온라인 유통환경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김철호, & 김사균(2011)의 연구와 의견을 같이한다.

다섯째, 다음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기계조작’ 역량이었다. 기계조작 역량은 바람직한 수준 역시 5번째로 높았다. 수도작에 있어 기계화율은 100%에 육박하고 발작물의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기계 조작법의 습득은 농업경영자의 필수역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기계조작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술식 응답에는 농기계가 고가이어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도가 높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병충해관리’ 역량이 여섯 번째로 높은 요구도로 나타났다. 병충해 관리는 병충해의 발생을 예측·조기 발견하고 병충해에 조기에 대처하는 역량이다. 병충해는 농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때때로 예측이 어려워 생산 부문에서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수준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을 통한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세가지 역량 모두 우선순위에 포함됐는데 재배관리나 작업관리 등 생산 부문은 교육을 통해 역량이 비교적 잘 습득할 수 있는 반면 경영 부문 특히 재무관리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 부문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경영부문에 대한 교육은 그만큼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영농승계자에 있어 이러한 역량이 부모세대로부터 계승하기 어려운 역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영농에 진입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 재무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고 보여진다.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 농업경영 역량 관련 단위가 적다는 지적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이근수, & 김진구, 2007). 농업경영의 목적이 농업 소득을 최대한 얻기위한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재무 구조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생산 부문의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의 재무관리를 비롯한 위험관리, 수익성 향상 등과 관련한 경영적 역량이 절실히 요청된다. 농업경영인에 있어 재무 관리는 취약한 실정이고 공통된 과제라고 지적하는 김철호, & 김사균(2011)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유동성분석, 투자위험분석, 원가계산 및 가격책정방법, 비용구조개선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재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객관화된 자료를 기초로 재무구조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때 보다 발전적인 대안의 수립이나 경영 및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기회계’ 역량은 HH분면에 속하지 못했으나 Borich 요구도는 7번째로 높았는데, 재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기회계’ 역량과 연동될 필요가 있다. 기록이 잘 되어야 재무의 파악과 분석, 계획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엄지범, 윤진우, & 유찬주, 2018).

본 연구는 영농승계자의 교육연수에 대한 요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그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승계자의 영농형태나 품목이 다양한데 유형화된 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대구, 이효진, & 김경미. (2018). 치유농업운영자의 교육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2), 23-54. DOI:10.23840/agehrd.2018.50.2.23
- 강혜정. (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35(4), 829-848.
- 김대희, & 신윤희. (2012). 농촌지도기관이 제공하는 농업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3), 23-45. DOI:10.23840/agehrd.2012.44.3.23
- 김정섭, & 이정해. (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151, 1-20.
- 김진모, 손규태, 유영주, & 정지용. (2019). 농촌리더의 교육요구분석. *산업교육연구*, 38, 45-65.
- 김철호, & 김사균. (2011). 농업법인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역량개발 방안. *산업경제연구*, 24(3), 1595-1614.
- 마상진, & 김영생. (2006).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1), 1-26.
- 마상진, 박성재, & 김강호. (2011). *농림수산물 인력육성 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정은미, & 김정인. (2017). *고령화 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나주: 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김정호, & 김창호. (2011). *농업구조정책의 평가와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순열, 이기웅, & 유찬주. (2005). *벤처마킹을 위한 경영자능력 평가기법 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 엄지범, & 박명은. (2020). 청년농업인에 있어 영농실습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식품유통연구*, 37(3), 51-80.
- 엄지범, 윤진우, & 유찬주. (2018). 영농설계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록 농업인 특성 분석: 경영관리적 접근. *농업경영·정책연구*, 45(1), 108-127. DOI:10.30805/KJAMP.2018.45.1.108
- 유제창. (1995). 축산경영자 능력에 관한 연구. *축산경영학회지*, 11(1), 3-13.
- 유찬주. (2011). 한우농가의 경영자능력 평가와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38(4), 848-866.
- 이근수, & 김진구. (2007).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 학생들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및 교육내용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1-33.
- 이영호. (1982). 영농승계를 위한 농지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14(1), 37-48.
- 정지인, & 김성훈. (2017). 일학습병행제의 OJT 특성이 참여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기업규모의 조절효과. *한국생산성학회*, 31(3), 251-277. DOI:10.15843/kpapr.31.3.201709.251
- 조대연. (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차동욱, & 소순열. (1999). 농업경영자능력의 요인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30, 86-100.
- 한국농수산대학. (2019).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현황 분석*.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농업경제학*. 을곡출판사.
- 淡路和則. (1996). *經營者能力と担い手の育成*. 東京: 農林統計協会.
- 島義史. (2009). *イチゴ作新規参入者の成長プロセス*. *農業経営研究*, 47(3), 1-10. DOI:10.11300/fmsj.47.3_1
- 土田志郎. (1996). 第9章水田作経営の経営管理と意思決

- 定, 水田作經營の發展と經營管理 総合農業研究叢書 28, 173-185.
26. 梅本雅, & 山本淳子. (2005). 農業經營における經營繼承の進め方. 農業經營繼承シンポジウム資料.
27. 柳村俊介. (2003). 現代日本農業の繼承問題—經營繼承と地域農業 日本經濟評論社.
28. 柳村俊介. (2018). 일본의 농업경영 계승 문제와 대책의 과제 제3자 계승에 대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세미나 자료. 완주: 국립농업과학원.
29. Adhikari, B. B., & Suvedi, M. (2000). *Educational needs of michigan livestock farmers*. Paper presented at the 2000 Annual meeting, Tampa, FL. DOI:10.22004/ag.econ.21858
30. Bailey, N. E., Arnold, S. K., & Lgo, C. G. (2014). Educating the future of agriculture: A focus group analysis of the programming needs and preferences of Montana young and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55(2), 167-183. DOI:10.5032/jae.2014.02167
31. Benson, M. C., Niewolny, K., & Rudd, R. D. (2014). *An evaluation of program, training, and resource needs of Virginia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Virginia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coalition program*. Blacksburg: Virginia Tech.
32. Fayol, H. (1949). *General and industrial management*. London, England: Pitman.
33. McKillip, J. (1987). *Need analysis: Tools for the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34. Mink, O. G., Shultz, J. M., & Mink, B. P. (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Austin, TX: Somerset Consulting Group, Inc.
35. Trede, L. D., & Whitaker, B. S. (2000). Educational needs and perceptions of Iowabeginning farmers toward their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41(1), 39-48. DOI:10.5032/jae.2000.01039
36. Witkin, B. R., & Altshuld, J. W. (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Received 12 November 2020; Revised 02 December 2020; Accepted 16 December 2020



Dr. Ji-bum Um is a Lecture Professo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Agribusiness management.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Republic of Korea
E-mail: umjibum@jbnu.ac.kr
phone: 82-63-270-2532